익산 청년창업농 육성 호응

청년사업가·지역 농특산물 홍보대사로 농촌에 새 바람
진입·정착·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내년 39명 선발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창업농 육성 사업이 지역 농촌에 젊은 바람을 일으키며 호응을 얻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에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청년창업농 100여명이 각 분야에서 활동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양봉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창업농 박성률 씨는 마을전자상거래 유튜브 진행자로 활동하며 중소농가들의 농산물 판매를 돕고 지역 농특산물 우수성을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식품벤처센터에 입주한 김지용 씨의 경우 청년사업가로서 발판을 다지고 있다. 작두콩을 재배, 가공하여 커피로 상품화한 데 이어 한국관광공사 성장관광벤처로 선정돼 체험사업을 유치하며 융복합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흑염소를 키우는 김단오 씨는 가공사업으로 영역을 넓히면서 귀농 사례 강사로도 활동 중이며 농업인단체 청년분과장으로 역할을 맡아 청년정책 제안에도 남다른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

시는 그동안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진입, 정착, 성장 단계별로 지원체계를 마련해 실행해왔다.

우선 예비 청년창업농 유입을 위해 '청년농부들의 夜한 農談' 강좌를 개설해 청년농업인들과 창업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을 진행해 왔다. 농업에 진입한 청년창업농에게는 영농정착금을 월80~10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융자금을 최대 3억원까지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지원하여 농지나 시설을 마련토록 돕고 있다. 창업 초기 경제 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자금 이차지원, 영농기반 임차지원,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 올해 총 26명에게 지원했다. 또한 선진 영농기술 기반조성사업을 통해 시설원예에 종사하는 청년창업농의 농업 생산성을 높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내년에는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사업 뿐 아니라 전문가와 선도농업인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을 조직해 농장방문, 소그룹 네트워크 활동,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 정착과 영농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 덕분에 청년창업농 문의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고령과 건강 등을 이유로 자녀에게 농업 승계를 희망하는 부모 세대가 직접 상담하는 사례도 많아졌다.

시는 청년창업농 육성을 위해 내년에도 39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사업신청 희망자를 대상으로 오는 24일과 28일 2회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해 신청 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제공된다.

이어 자녀 승계 희망 부모 세대를 대상으로 오는 29일 2회에 걸쳐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설명회'를 갖고 시가 추진하는 여러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자녀들의 귀농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헌율 시장은 "올해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내년에는 신규사업 등 14여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며 "청년들이 익산으로 와서 성공하고 지역 농업 발전의 동력이 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창업농 육성 사업이 지역 농촌에 젊은 바람을 일으키며 호응을 얻고 있다.

익산시, 청년 주거안정 도모

내년부터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추천·이자 지원 등

익산시가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22일 내년부터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에게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추천과 이자 지원 등으로 청년들의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화되면 청년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신청할 경우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이자 3%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지역에 주소를 둔 만 18~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 연 소득 조건에 해당하고 주택마련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청년들이다. 내년에 최대 100가구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의 연 소득이 8,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경우 본인 연 소득 5,000만원 또는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주택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원이며 대상은 지역 내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1억 5,000만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해당된다.

대출기한은 2년으로 2회에 한해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사업 시행을 위해 사전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 당초 시는 지원 기준을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나 보건복지부가 지역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과 타 지자체 상황을 비교해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중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지원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대 황성원 교수, 한국자치행정학회장 선출

군산대학교 황성원 교수(행정경제학부 행정학전공)가 2021년도 한국자치행정학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년이다.

한국자치행정학회는 다양한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학회로, 행정학, 정책학, 지방자치 분야를 연구하는 교수, 연구원, 행정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자와 행정인 간의 활발한 산·학·관·정 협력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한국자치행정학회보'를 발간하고 있다.

황성원 신임 학회장은 "내년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로, 지방의 자율확대,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개혁 등에 대해 학회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군산=남현봉기자

군산시, 기술분야 공무원 역량 강화

외부 강사 초빙 '기술연찬회'… 전문교재 제작 배포도

군산시가 기술분야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시 감사담당관은 지난 2019년부터 기술직 공무원들이 꼭 알아야 할 필수 내용과 전문지식 등을 공유하기 위해 외부 강사를 초빙, '기술연찬회'를 개최해 기술직 공무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대면 행사를 자제하고, 기술직 공무원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담은 '2020 기술연찬회' 기술교재〈사진〉를 제작해 시설, 공업, 통신직 등 관계 공무원 200여명에게 배부했다. 이번 기술교재는 사업추진 시 공사감독의 단계별 업무 및 점검 사항에 대한 사례별 상세 설명을 통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기술업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공공계약 사례별 판례 및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을 수록하여 실무행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안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능력을 키워 원활한 사업추진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남철 감사담당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엄중한 상황이지만, 기술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에 일상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책자를 발간해 비대면 방식으로 배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산시 기술공무원들의 역량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기자

군산 삼학시장, 도시재생예비사업 국토부 공모 선정

군산시는 22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1년 도시재생예비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대상지는 시설노후화 및 상권이전 등 지역상권 쇠퇴로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대두된 삼학시장 일원이다.

시는 지역주민협의체와 함께 역량강화교육, 환경정비 등을 진행하며 공모를 준비해 '내 오랜친구 삼학시장, 비상프로젝트'라는 사업명으로 선정의 쾌거를 이뤘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2억2,000만원(국비 1억1,000만원)으로 오는 2021년 1년간 소규모 시설정비사업과 주민공동체 형성을 위한 목로주점 조성, 야시장 개최 등 주민주도의 소프트웨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시재생예비사업은 본사업인 뉴딜사업의 준비성격으로, 주민공동체와 함께 지역문제 해결 및 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기만 도시재생과장은 "'나'가 아닌 '우리'가 만들어가는 도시재생으로 삼학시장의 지역문제를 주민과 함께 해결하여 밝고 활기찬 시장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나아가 성공적인 도시재생예비사업 추진을 통해 뉴딜사업으로 확장시킬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군산=한경봉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체육회장상 시상

올 한해 익산 체육을 빛낸 유공자들을 축하하는 '2020년 익산시체육회장상 시상식'이 22일 열렸다.

시상식은 익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맞추어 별도 개최되지 않으며 우수선수 부문과 우수단체 부문 7명의 수상자들만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되었고 나머지 수상자들에게는 체육회 직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체육상 수상자는 공로부문 49명, 우수선수 부문 7명, 우수단체 부문 3팀, 지도부문 5명과 감사패 9명으로 상패와 부상이 전달 됐다.

부상은 익산시체육회 자체 예산과 지난 11월 익산시여성체육협회(회장 이해정)에서 진행한 와인소금 판매 행사수익금 200만원을 우수선수 장학금으로 기부 하였고 익산시체육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양승용) 위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예산과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조장희 체육회장 취임식 관련 비용을 더해 진행하였다.

올해 각종 육상대회에서 금메달을 휩쓸며 한국 육상의 유망주로 급부상한 이리초등학교 최명진 등 선수상 수상자들에게는 상금 20만원이 전달되며 원광대 야구부 등 단체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30만원이 전달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인구 정책 강화

익산시가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전입 장려 시책을 신설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인구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22일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의회 정례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관련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다양한 전입 장려금이 확대 지급된다.

우선 다른 지역에서 익산으로 전입한 세대는 전입 장려금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며 실거주 미전입자 전입을 유도한 유공 시민에게는 5명 이상 전입유도 시 50만원, 10인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익산=장양원 기자